

<2010년 9월 8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주님이 말씀하신 밭에 감추인 보화의 근본은 ‘천국’이다. 천국은 마치 보화와 같이 비싸고 귀한 것으로서 꼭 사서 얻어야 된다는 것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다음에 육에 속한 것으로 주님 안에서 받는 보화를 말씀하신 것이다.
2. 밭의 보화를 꼭 발견해야 되듯 천국을 꼭 발견해야 된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면 보화가 숨겨진 밭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그 밭을 샀어도 그 밭을 가지고 농사나 짓고 말듯이 무가치하게 끝나고 만다. 고로 밭의 보화를 발견하듯이 세상에서 살면서 천국을 꼭 발견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사야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자기 보화가 되듯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믿고 구원 받아 주님을 사랑하고 온전한 신부가 되어야 천국 보화가 자기 것이 된다.
3.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사듯이 자기 인생을 다 투자하여 천국을 사라.
4. 누구나 자기 소유를 다 팔아야 보화가 숨겨진 밭을 사게 되듯이 나와 내 아버지가 허락한 것도 너희 소유인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야 얻게 된다.
5. 자기의 작은 소유와 많은 소유를 바꾸는 것이니 자기 것을 아까워하면 사지 못한다. 자기 소유를 팔아 보화가 숨겨진 밭을 사고, 그 후에 그것을 가지고 또 소유를 사면 된다.
6. 천하를 준다고 하여 자기 목숨을 내 주는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느냐.

천하를 얻는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자기 생명을 얻은 자가 천하를 얻은 자요, 나를 얻은 자가 천하를 얻은 자다.

7.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으려면 많이 투자해야 된다.